

■ 이용섭 당선자 승리 배경과 정책

“2전3기 길고도 먼 여정”

‘시민 민심·현안 청취’ 4대 선거운동 소통 12조원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 그랜드 비전

광주시장 선거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 당선자의 압승은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특성과 광주를 한마음으로 묶는 ‘윙팀’, 그리고 시민 삶 속으로 찾아가는 행보 등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와 대결구도였던 강기정·민형배·양향자·이병훈·최영호 전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이 당선자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4대 운동’ 시민과 소통

이 후보는 그 동안 각종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1자리 경제시장 2용선의 12대 공약’을 통해 광주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고, 민주당 경선 후에는 같은 당 예비후보 모두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광주시민의 표심을 결집시켰다.

또 주요 현안 집중점검 투어와 광주행복 1번가, 스마트경정유세단, 클릭봉사단 등의 ‘시민 삶 속으로 찾아가는 4대 선거운동’을 펼쳐 밀

박각 민심청취부터 현안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번의 장관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검증된 능력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최근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관계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압도적 지지의 이유로 풀이된다.

여기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광주발전의 열망이 높은 광주 시민의 뜻과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고공행진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6·13 지방선거에서 이 당선자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3일 방송 3사가 발표한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응답이 64.2%로 집계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25.8%)는 응답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

격을 띠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과 남북화해협력 흐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당선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과 맞물려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적절한 양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광주 군공항을 연결해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랜드 비전을 제시했다.

또 구인·구직 지능형 잡 매칭시스템 도입과 일자리 미스매치 극복을 위한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2전3기 참으로 길고도 먼 여정이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길 것이며, 선거기간 약속 드렸던 ‘떠나는 광주’에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200만 광주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는 누구?

지방출신 불구 정부요직 두루 거친 전통관료 문재인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완성 공신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는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70년 전남대학교에 입학, 2학년 때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해 4학년 때 합격했다. 전남대에서 재학 중 고시합격은 처음이었다.

시골 고등학교(함평 학다리고)-지방대(전남대)-전라도 출신이라는 약조건 하에서 그의 공직인생이 시작됐다.

이 당선자는 재선의 국회의원, 국제시장, 행정부장관, 청와대 혁신수석, 건교부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에서 호남 출신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참여정부에서의 요직과 경륜을 바탕으로 2008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표를 던졌지만, 패하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재선에 성공한 뒤 2013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김한길 대표에 패배한 뒤 2014년 다시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의 새정치 신탄과 합당해 새정당을 만든 후 당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 당선자는 그에 맞서 탈당 이후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영입 케이스로 복당해 총선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비상대책위원, 선거대책위원, 그리고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중책을 맡았다. 총선 결과 123석의 의석을 확보해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제1당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를 이끌었다. 세 번째 광주시장에 도전한 그는 당내 경선에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고, 2018년 6월 13일 드디어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 당선됐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유력자

<13일 밤 11시30분 현재>

※표 보는 법 이름(정당·나이·직업)
더불어민주당 = 민, 자유한국당 = 한, 바른미래당 = 바, 민주평화당 = 평, 정의당 = 정, 대한애국당 = 대, 민중당 = 중, 무소속 = 무

광주



동구청장 임택 (민·54·정당인) 서구청장 서대석 (민·56·정당인) 남구청장 김병내 (민·45·정당인) 북구청장 문인 (민·59·정당인) 광산구청장 김삼호 (민·52·정당인)

전남



목포시장 박홍률 (평·64·목포시장) 순천시시장 허석 (민·53·정치인) 나주시시장 강인규 (민·63·나주시장) 광양시장 정현복 (무·68·광양시장) 여수시장 권오봉 (무·58·무직)



담양군수 최형식 (민·62·담양군수) 장성군수 유두석 (무·68·장성군수) 곡성군수 유근기 (민·55·곡성군수) 구례군수 김순호 (민·55·정당인) 고흥군수 송귀근 (평·61·정당인) 보성군수 김철우 (민·53·정치인)



화순군수 구충곤 (민·59·화순군수) 장흥군수 정중순 (무·63·농업인) 강진군수 이승옥 (민·61·정당인) 완도군수 신우철 (민·65·완도군수) 해남군수 명현관 (평·55·정당인) 진도군수 이동진 (민·72·진도군수)



영암군수 전동평 (민·57·영암군수) 무안군수 김산 (민·60·자영업) 영광군수 김준성 (민·66·정당인) 신안군수 박우량 (무·62·정치인) 함평군수 이윤형 (평·52·함평군의회 의원)

민주, 압승에 축제 분위기... 당선 스티커 자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7회 지방선거 개표 결과 압승이 유력해지자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차려진 개표 상황실을 찾아 승리를 자축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을 휩쓸 것으로 나타난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으로 개

출구조사 결과·개표 방송 보며 끊임없이 박수와 환호성 추미애 “오늘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것...표에 보답”

표가 진행되자 지도부의 일곱에선 시종일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추 대표는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춘석 선거대책본부장, 윤호중 상황실장, 정정래 평화철도 111 유세단

장과 함께 개표상황실로 앞으로 다가와 승리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당선’ 스티커를 붙였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재보선 11곳 중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제천·단양을 제

외한 10곳의 지역에 ‘당선’ 스티커가 붙었다.

광역단체장 선거 상황판에도 패배가 유력한 경북, 대구, 제주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까지 4곳을 제외한 13곳에 스티커가 붙었다.

추 대표는 스티커를 붙인 뒤 지도부와 함께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고 국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크게 선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주신 표에 보답하는 것

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평화와 경제, 민생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 뜻에 가슴 깊이 잘 새기면서 더욱 겸손하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충실히 과제를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상황실장은 “국민들의 주권 의식과 주권자로서의 자각이 높아지면서 결국 대한민국을 국민의 뜻에 따라 바꿔놓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도 박수와 환호성으로 개표상황실을 달궜다.

추 대표와 이해찬 수석공동선대위원장, 이석현·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총출동해 결과 발표 전부터 서로 “고생했다”, “투표율이 높다”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카운트다운을 따라 외치던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이 민주당 우세라는 결과가 뜨자 일제히 “와아!”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연합뉴스